

야놀자, 2940억에 인터파크 인수
글로벌 여행시장 본격 공략 나서

숙박 플랫폼 야놀자가 인터파크 사업부문을 인수한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II'로부터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뒤, 글로벌 여행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놀자는 여행·공연·쇼핑·도서 등 인터파크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9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국내외 여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야놀자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해외 여행시장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내 여행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야놀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쳐왔다. 야놀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여행 플랫폼들과 SaaS를 상호 연계하는 등 고객 사용성 측면에서 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여행 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SaaS 리더십 확보와 함께 해외 여행시장을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1996년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한 국내 1세대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명근 기자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허리디스크·척추측만증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 의료진 통해 환자 맞춤 도수치료 해야

현대인의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에는 허리디스크와 척추측만증, 목디스크 등이 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 디스크가 강한 충격이나 외상, 복부비만, 잘못된 자세 및 노화 등 여러 원인으로 밖으로 나와 척추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지나치게 옆으로 휘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굽어 변형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목디스크는 목뼈(경추) 주위의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거나 목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목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통증은 초기에 약하지만 점차 심해지며, 방치하면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장과 폐를 압박해 심폐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에 걸린 환자라면 비수술 치료인 도수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도수치료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도구를 이용해 변형된 근골격을 바로잡는 치료다. 정형외과 의료진의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전문 치료사가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틀어진 관절을 정상화한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치료법이므로 과잉진료 없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담당해야 환자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인지하고 올바른 자세를 교육하며 도수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체형교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강일동 삼성튼튼마디의원 윤정준 원장

부고

▲박상천 전 (주)백마 대표 별세, 박해준 사쿠라상사 대표, 스포츠동아 해외통신원·박희준 개인사업·박해영 씨 부친상=14일 오전 6시 서울보라매병원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2-836-6900

세계철강협회 회장단 선임

최정우 포스코 회장, 글로벌 철강업계 이끈다

첫해는 부회장, 다음 1년은 회장직
업계 최초 수소환원제철 포럼 성료
세계 철강업계 탄소중립 적극 주도
국내 유일, 스틸리 어워드 2관왕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이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회장단에 선임됐다. 포스코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회원사 연례회의에서 최정우 회장이 인도 JSW의 사잔 진달 회장, 중국 허베이철강그룹의 우용 부회장과 함께 회장단에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철강업계 탄소중립 주도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총 3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첫 해 부회장직을 1년간 맡고, 다음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마지막 3년 차에는 다시 1년간 부회장직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내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총회 개최 시까지 1년간 신입 부회장 역할을 맡게 되며, 2022년 10월부터 1년간은 회장으로서 전 세계 철강업계를 이끌어가게 된다.

포스코 역대 회장 중에는 1996년 김



포스코가 3월 포항에 개관한 Park1538 전경. Park1538은 홍보관과 역사박물관, 명예의 전당, 수변 공원 등을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포스코와 철강 산업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진제공 | 포스코

만제 전 회장, 2007년 이구택 전 회장, 2013년 정준양 전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권오준 전 회장은 2017년 부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HyIS(Hydrogen Iron&Steel Making Forum 2021) 포럼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세계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 포스코가 세계철강협회 내 중요 테스크포스인 철강 메가트렌드 전문가 그룹 위원장과 강건재 수요증진 협의체 위원장을 맡는 등 협회에서 꾸준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을 높게 평가받아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 등 수상

포스코는 이날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제12회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 2관왕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유

일하게 포스코가 기술혁신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수상했다. 올해는 총 5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부문을 수상했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한 기가스틸 롤스탬핑 신성형 공법 세계 최초 개발 및 국내외 협업을 통한 양산화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가스틸은 인장강도 1GPa 이상의 초고강도 경량강판으로 1mm² 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꿈의 자동차용 강판'이라고 불린다.

포스코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 자체 경량화 요구 등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약 50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광양제철소 부지 내에 기가급 강재 제조설비를 신·증설해왔으며 지난달 기가스틸 10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올해 3월 포항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인 Park1538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연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철의 심미성과 미래 기술력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담아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첫 3조 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포스코의 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3조11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4.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20조61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53% 증가했다. 포스코는 25일 3분기 컨퍼런스를 방식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못 하는 게 뭐야?” 식물도 키워주는 가전... ‘신가전’ 열풍

자동온도 조절 등 재배 과정 자동화
채소 약4주·허브 6주 후 수확 가능
새 시장 개척 위한 CIC모델 첫 사례

‘신가전’ 경쟁이 뜨겁다. 이번에는 꽃이나 채소,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신개념 생활가전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겨냥한 틈새시장 공략이다.

●플랜테리어 가전 ‘LG 락온’ 출시

LG전자는 ‘LG 락온’을 14일 출시했다.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식물 재배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한 스마트 플랜테리어 가전이다. 자동 온도 조절과 순환급수, 통풍 환기 시스템 등 생활가전의 기술이 담겨있다.

사용자는 내부 선반에 씨앗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은 뒤 문을 닫으면 된다. LG 락온은 위·아래 2개의 선반을 갖췄고, 각 선반에 키트를 3개씩 장착할 수 있다. 각 키트마다 10개 홀에서 씨앗이 발아해 최대 60개의 모종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채소는 약 4주, 허브는 약 6주 후 수확



초보자들도 식물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LG전자의 ‘LG 락온’. 내부 선반에 씨앗 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은 뒤 문을 닫는 것만으로 최대 60개의 모종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사진제공 | LG전자

이 가능하다. 꽃은 약 8주 후에 핀다. LG전자는 20종의 씨앗키트를 먼저 선보인 뒤, 향후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생장 환경조건이 비슷한 식물 3종을 결합한 키트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다. 베스트샵과 LG전자 홈페이지,

LG 씽큐 앱 등에서 구입하거나 정기구독할 수도 있다. LG 락온을 LG 씽큐 앱과 연동하면 모바일을 통해 식물 성장 단계와 환경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품 출고가는 149만 원. 31일까지 배

스트샵과 LG전자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LG전자는 성장한 식물을 옮겨 감상할 수 있는 액세서리 ‘LG 락온 미니’도 출시할 예정이다.

●새 제품으로 틈새 공략

LG 락온은 LG전자가 신사업을 육성하고 새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만든 사내독립기업(CIC) 모델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LG전자는 최고전략책임자(CSO)부문 산하에 신사업을 육성하는 비즈인큐베이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LG 락온을 맡고 있는 스프라우트 컴퍼니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과 사업 모델을 추진 중인 CIC을 육성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LG 락온은 CIC, H&A 사업본부, 한국영업본부의 협업을 통해 기획, 출시됐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이색 가전제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홀브루’와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을 출시했다. 신발관리기 등도 출시 준비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도 밀키트와 가정간편식을 조리해주는 ‘비스포크 큐키’와 신발관리를 도와주는 ‘비스포크 슈드레서’ 등을 내놓으며 새 시장을 발굴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